

‘우승 후보’ SSG·LG 1위 싸움...중·상위권도 경쟁 돌입

3할 육박 팀타율 NC, 2.61 낮은 팀 평균자책점 기록

중상위권 노리는 두산...삼성·한화, 하위권서 시즌 시작

지난해 통합 우승을 차지한 SSG 랜더스가 올 시즌도 초반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SSG는 지난 1일 개막 후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해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SSG는 지난해보다 전력이 약화됐다고 평가 받고 있지만, 올해 박종훈과 커크 맥카디, 오원석 등 안정감 있는 선발진과 짜임새 있는 불펜진을 앞세워 최근 4연승을 달렸다. 시즌 평균자책점이 2.83으로 낮다.

SSG는 이번 주 최근 4연패 중인 삼성 라이온즈, 상위권을 노리는 NC 다이노스와 차례로 맞대결을 펼친다.

하지만 SSG는 에이스 김광현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소 불안하다. 어깨 부상으로 복귀가 불투명한 애니 로메로의 공백도 불안요소다. 최정과 추신수, 한유석 등 베테랑 타자들의 타격감이 살아야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SG는 1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오원석을

선봉장으로 내보낸다.

우승 후보 LG 트윈스는 시즌 6승 2패를 기록해 2위를 달리고 있다.

외국인 투수 아담 플러트코와 케이지 켈리가 이끄는 선발진과 KBO리그 최강 불펜진을 앞세워 상위권에 올랐다. LG는 팀 평균자책점이 2.47로 10개 구단 중 1위다.

LG는 팀 타율 역시 0.285로 높다. 문성주와 문보경, 오스틴 딘, 김현수가 고감도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LG는 11일부터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을 치른 후 주말에 ‘영원한 라이벌’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다.

LG의 주전 유격수 오지환은 옆구리 부상으로 약 2주간 결장하지만, 마무리 고우석은 복귀를 앞두고 있다. 고우석이 돌아올 경우, 투수력은 더 강해진다.

NC 다이노스와 두산은 5승 2패의 성적을 올려 공동 3위에 자리했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아, 다음주 선전이 예상된다.

NC는 3할에 육박하는 팀 타율과 2.61의 낮은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NC는 키움 히어로즈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았다. 오영수는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으며, 김주원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포수 박세혁은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NC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는 올해 2경기에서 2승을 올렸고, 13이닝 동안 자책점이 없다. 지난해 창단 후 처음으로 9위로 떨어졌던 두산은 올해 중상위권을 노린다.

초반 분위기는 좋다. 양석환과 양의지, 강승

호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박빙의 상황에서 타선의 집중력이 뛰어나다. 특히 양석환은 최근 4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쓸어담아 홈런 부문 1위에 올라섰다.

두산은 불펜진이 다소 들쭉날쭉하지만 곽빈, 김동주, 라울 알칸타라가 이끄는 선발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5위 KT 위즈(3승 2패)와 6위 KIA 타이거즈(2승 3패), 7위 키움 히어로즈(3승 5패), 8위 롯데 자이언츠(2승 4패)는 이번 주 반격을 시작한다.

9위 삼성(2승 5패)과 최하위 한화(1승 6패)는 가장 불안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엔 데이비드 뷰캐넌을 제외하고 믿을 만한 투수가 없다. 알버트 수아레즈와 윌태인, 백정현 등 선발진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삼성의 팀 평균자책점(5.34)과 팀 타율(0.223)은 10개 구단 중 최하위다.

한화는 지난해와 달리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번 뒷심이 부족하다. 다잡은 승리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역시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한 명도 없어 험난한 시즌이 예상된다.

다만 한화는 노시환과 채은성의 시즌 초반 타격감이 좋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삼성은 선발 투수로 윌태인, 한화는 남지민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나선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9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 5회 초 2점 홈런을 치고 있다.

김하성, 절묘한 골프스윙 홈런 화제

MLB닷컴, 시즌 2호 홈런 소개...지면 위 25cm 공 때려내 홈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절묘한 ‘골프스윙 홈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MLB닷컴은 10일(한국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김하성이 시즌 2호 홈런을 날리는 장면을 올리면서 “김하성이 골프 스윙으로 홈런을 쏘아올렸다”고 소개했다.

해당 영상은 30만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했다.

메이저리그(MLB)의 각종 기록을 소개하는 MLB닷컴의 사라 랭스 기자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김하성의 홈런을 조명했다.

랭스 기자에 따르면 김하성은 지면으로부터 0.82피트(약 25cm) 높이의 공을 걷어올려 홈런으로 연결했다. 이는 관련 수치를 집계한 2015년 이래 홈런으로 연결된 투구 중 5번째로 낮다.

샌디에이고 구단도 공식 트위터 계정에 김하성의 홈런 장면을 게재하면서 “누가 이 선수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주세요”라고 적었다.

샌디에이고 팬들도 합성 사진 등을 올리며 호응했다.

그린 재킷은 이날 막을 내린 골프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옷이다.

김하성은 묘기에 가까운 스윙으로 시즌 2호 홈런을 때려냈다.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 5회 6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팀이 6-0으로 앞선 5회초 1사 3루에서 좌완 루카스 루트지를 상대로 좌월 투런 홈런을 작렬했다.

루트지는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 시속 75.6마일(121.7km)짜리 스윙퍼를 던졌는데, 김하성은 몸쪽 낮은 공을 골프 스윙처럼 걷어올려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타구로 연결했다.

뉴시스

“한번도 안졌다” 울산·포항 ‘뽕뽕’...강원·수원은 ‘무승’

프로축구 K리그1 구단들이 전체 38경기 중 6경기씩을 소화한 가운데 개막 후 무패 팀과 무승 팀이 2개 팀씩 나왔다.

울산 현대는 과속의 6연승을 달리며 리그 1위로 나서 지난해 우승팀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울산은 지난 8일 수원삼성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포항스틸러스 역시 무패 행진 중이다. 포항은 4승2무 승점 14점으로 울산에 승점 4점 차로 뒤진 2위에 올라 있다.

포항은 지난 8일 돌풍의 팀 광주FC를 2-0으로 잡았다. 고영준과 백성동이 골을 터뜨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반면 강원FC와 수원삼성은 아직 첫 승을 거

득지 못하고 있다. 수원은 2무4패 승점 2점으로 리그 12개 팀 중 최하위에 처져 있다.

지난 시즌 8골을 책임졌던 안병준이 아직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부상에서 돌아온 풀리치는 울산전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김보경, 바사니, 고승범, 이종성이 버티는 중원은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다. 불투스와 정승원이 있는 수비는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강원 역시 3승3무 승점 3점으로 리그 11위로 처져 있다. 지난해 상위 스플릿에 진출했던 강원은 올 시즌 지난해와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김연경, 시즌 끝나도 존재감 여전...행선지에 시선 집중

V-리그 시상식 참석...현역 연장 여부·FA 이적 여부 등 초미 관심사



김연경(흥국생명)이 준우승으로 배구 시즌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배구팬들의 시선은 김연경을 향하고 있다. 현역 은퇴 여부와 차기 행선지를 둘러싸고 이야깃거리가 샘솟고 있다.

프로배구는 10일 오후 4시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2-2023 V-리그 시상식을 끝으로 시즌을 마감한다.

김연경은 이날 남녀부 베스트7은 물론 여자부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크다.

김연경이 이날 행사에서 현역 은퇴 여부

와 차기 행선지에 관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연경은 시즌 중이었던 지난 2월 은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챔피언 결정전 패배 후에는 현역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가 된 점도 변수다.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9일 발표한 여자부 FA(자유계약선수) 명단에 김연경이 포함됐다. FA 협상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만다.

김연경이 흥국생명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팀을 택할지가 관심사다.

다른 구단이 김연경을 데려가려면 김연경의 이번 시즌 연봉 200%와 함께 보상선수 1명을 넘겨야 한다. 보상선수 없이 연봉 300%만 지급해도 된다. 김연경이 연봉 7억 원을 받은 탓에 김연경을 영입하려는 구단은 20억원에서 최고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김연경은 챔피언 후에도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연경의 향후 행보가 한국 배구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컬링연맹 “강릉 세계선수권 우승 목표...시니어 지원 힘쓸 것”

오는 21일부터 강릉서 믹스더블·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 대한컬링연맹 기자 간담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 등 연맹 임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한컬링연맹이 2023 믹스더블 시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한상호 컬링연맹 회장은 10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강원 강릉시 강릉컬링센터와 아이스하키장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세계선수권대회급 국제대회 개최는 2009년 여자컬링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한 믹스더블 국가대표 김지윤(서울시청)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라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50세 이상이 출전하는 시니어 대회에는 동호인 허정옥, 천인선, 함영우, 최종경, 신만호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한다.

정장현 시니어팀 코치는 “시니어선수권은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 페스티벌에 가깝다”며 “선수들이 경기에 만족하고 즐기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만호씨는 “국가대표가 됐다니까 주변 반응이 대단하다”며 “이번 대회에 집중하려고 직장도 그만뒀다”고 의지를 보였다.

시니어 국가대표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당당히 얘기할 것”이라며 “엘리트스포츠인뿐 아니라 시니어 선수들도 지원 받도록 힘쓸겠다”고 말했다.

컬링연맹은 김용빈 전 회장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임하면서 올해 2월 한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컬링리그 부활 등을 외친 한 회장은 “최근 내흥으로 연맹이 방향성을 잃었었는데, 선수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과는 친분으로 컬링연맹 홍보대사를 맡은 배우 김보성도 이날 참석해 “컬링연맹이 의리로 화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녀부 실업팀이 총 10개로 늘어난 컬링 리그는 향후 리그 일정 및 운영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2024시즌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은 오는 6월 예정돼 있다.